‘2003 벤처인 송년의 밤’ 개최

– 벤처정책자문단 발족식도 거행

협회는 지난 12월 18일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벤처인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3 벤처인 송년의 밤’과 ‘벤처정책자문클럽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번 송년의 밤은 그간 벤처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써온 벤처CEO 및 각계 각층의 벤처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04년 새해 재도약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한편, 이날 발족된 벤처정책자문클럽은 연구소, 업계, 학계, 금융, 법률, 언론에 종사하는 25명의 벤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벤처업계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건전하고 역동적인 벤처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벤처기업 조직역량강화 연수’ 개최

협회는 지난 12월 18일부터 2박 3일간 대구은행 연수원에서 벤처기업 임직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벤처기업 조직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사내 조직력 강화와 조직내 문제해결 능력 습득, 리더십 및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수도권과 지방 벤처기업의 네트워킹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장소를 지방으로 정하고 지방 벤처기업의 참가를 적극 유도하여, 지역별 벤처기업간 정보 공유 확대 및 지방벤처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일조했다.

벤처넷 사업자 선정

협회는 2004년도 벤처넷(www.venturenet.or.kr) 신규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시스템 개발 사업자를 공모하여 심의 및 선정을 마쳤다.

벤처넷은 벤처기업들의 온라인 인증 및 네트워크 서비스로 협회가 재작년부터 중소기업청에서 이관 받아 운영하고 있다. 사업자 선정을 위해 지난 11월 3일 공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5개 기업이 참여했다. 11월 21일까지 총 6개 기업이 제안제출을 했고, 1개 기업이 적격미달로 서류심사에 탈락하고 최종 5개 기업이 2차 제안 및 기술 PT심사에 올랐다. 심사단(외부 3인, 내부 3인)은 제안 및 기술, PT심사를 거쳐 2004년도 벤처넷 위탁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오픈데이터 컨설팅’을 선정하였고, 상호 계약체결에 따라 향후 1년간 벤처넷 운영을 맡게 됐다.